

북광주우체국 봉사단 독거노인 집수리



북광주우체국(국장 김장호) '꿈과 사랑의 메신저 봉사단'은 최근 북구 임동의 한 독거노인 집을 방문해 전기시설을 수리하고 벽지 교체와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광주동부소방서 조선대서 긴급구조 훈련



광주동부소방서(서장 배성근)는 지난날 30일 조선대학교 본관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가스폭발로 인한 건물 붕괴를 가정해 실시한 훈련에는 동부소방서와 광주시 동구청 등 21개 기관에서 415명이 참가했다.

농협광주본부 '지역·농협사랑 워크숍'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중순)와 (사)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 모임 광주시지회(회장 박모님)는 지난날 30일 농협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12개 지역별 임원 및 여성복지 담당자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과 농협사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순천정원박람회 홍보대사 연예인 4명 위촉



순천시는 2일 방송인 김혜영(오른쪽에서 두번째)씨를 비롯 가수 추가영(맨 왼쪽), 현숙, 남궁옥분(맨 오른쪽) 씨 등 연예인 4명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날 31일 순천만길대교코퍼스티빌 행사장에서 이들에게 명예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

손수 키운 국화 화분 전시회 연 광주 두암동 대주빌라 경비원 전소남씨

“꽃 향기 퍼뜨려 주민 웃음꽃 피워야죠”

지난달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두암동 대주빌라에 국화축제가 벌어졌다. 합평의 국화대전이 나 영암 왕인국화축제도 아닌 광주시내의, 그것도 주택가 빌라단지에서 무슨 국화축제가 열렸을까? 대주빌라를 들어서니 노란색과 하얀색 등 형형색색의 국화가 빌라 앞 길을 따라 약 100m 가량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향긋한 국화꽃 향기가 길을 따라 퍼지면서 빌라 주민이 아닌 시민들도 안으로 따라 들어와 꽃 구경을 하는 등 '2009두암동 대주빌라 가을맞이 국화대축제'는 성황리에 진행됐다.

대주빌라의 국화대축제 기획자는 다름 아닌 이 빌라의 경비원 전소남(65)씨. 15~17등 경비원인 그는 올 4월부터 국화 150여개를 폐쇄된 놀이터에서 정성 들여 키웠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이 왜 국화를 키웠을까?

“33년간 중학교에서 기능직으로 활동하면서 꽃과 나무, 건물 등을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레 분재(盆栽)가 취미 생활이 됐어요. 지난 2005년 대주빌라 경비원으로 들어와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 국화를 혼자 키우다 보니 주민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국화꽃 20여개 담은 화분을 관리사무소 앞에 놓고 가졌다. 워낙 관리도 잘하고 예쁘게 가꾸는데다 국화가 색깔도 화려하고 향기도 좋아 아이들과 주민들이 서로 달라고 할 정도였다. 전씨의 솜씨를 안 주민들은 향기가 나는 대주빌라를 위해 본격적으로 국화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전씨는 지난 4월 국화 종자를 구입해 키우기 시작했다. 150개의 화분이 필요했지만



주민들의 돈을 쓰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화분을 가져와 수리했다. 이렇게 마련한 화분에 국화를 옮겨 심어 아파트 뒤 폐 놀이터에서 주민들 몰래 키웠다. 전시회 당일 주민들을 위한 관촬 소를 위한 것. “국화꽃을 화분에 담은 후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저질로 크지는 않아요. 12월까지 꽃을 보려면 서늘한 곳에서 보관해야 하며 꽃 사이 간격도 패어 줘야 해요. 많이 자라면 잘라주기도 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국화꽃으로 주민들 사이에 웃음꽃이 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었어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09두암동 대주빌라 가을맞이 국화대축제'는 수백여명의 동주민들이 다니다 아파트 홍보에도 한 몫 했다. 전씨가 키운 국화꽃은 2일부터 1~17동까지 각 동 입구에 두 개씩 놓여졌다. 국화꽃 향기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피어오르게 된 것이다. 전씨는 “경비원이라는 직업이 빌라의 환경 관리를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도 아름답고 향기나는 대주빌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기자 kps@kwangju.co.kr

광주학생독립운동 구속 학생 탄원서 80년만에 찾았다

김재기 학생독립운동연구단장 자료 공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구속된 조선인 학생들의 한 맺힌 탄원서가 80년 만에 발견됐다.

전남대 김재기(정치외교학과 교수) 학생독립운동연구단장은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리는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앞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2일 공개했다.

연구단은 한 달 전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는 '사상월보'에서 탄원서를 발견했다.

'사상월보'는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에서 1929년부터 3년간 만들어 극비로 분류한 책이다.

이 탄원서는 1930~1931년 당시 강달모 광주사범학교 3학년생, 이동선(광주사범학교 졸업생) 전남 담양군 봉안 보통학교 교사, 임주홍(광주 고등 보통학교 졸업생) 나흔대 1학년생 등 3명이 대구 복심법원(현 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A4용지 크기 15

쪽 분량이다. 강제 등은 식민지 교육체제 반대를 외치며 만들어져 학생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성진회 회원이었는데, 일제는 '성진회가 일종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회주의 단체'라며 이들을 처벌했다. 이에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일본 경찰이 악랄한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강달모는 “중학 2~3학년 정도의 사람이 치안유지법 제1조의 목적 아래 결사를 조직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라고 호소했으며 피고인 임주홍도 “경찰관사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고문에 대해서는 상태를 표현할만한 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문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제에 의해 1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대한



전남대 김재기 학생독립운동연구단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달전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상월보'에서 당시 조선인 3명이 제출한 진정서를 발견, 공개했다.

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애족장을 받았고 대전 국립묘지 등에 안장됐다. 김 단장은 “조선인 학생들의 처지가 반영된 당시 서류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며 “3·1운동, 6·10만세운

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으로 꼽히는 광주학생독립운동 연구가 미흡해 관련 사료가 사라지기 전에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김택수 새시대 대표이사

'기업희생 실무' 출판기념회

김택수 회계법인 새시대 대표이사가 오는 4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신양파크 호텔에서 자신이 쓴 '기업희생 실무'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에서 김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의 어려운 시절에 7년간 법정관리, 회생절차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풀어내고 있다.

김 대표이사는 광주이고, 한양대학교를 거쳐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한 후 대신증권 상무로 활동하다 현재 회계법인 새시대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농촌지도자대회 장관상

안인호 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 회장이 최근 한국농촌지도자전라남도 연합회에서 주관한 제1회 전남도농촌지도자 대회에서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동부취재본부=김형수기자 chough47@

'GSK 젊은의학자상' 수상

김성완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과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 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GSK 젊은의학자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 교수의 암환자, 노인, 정신분열병 환자 등 특수인구집단의 우울증 및 강박증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김 교수는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한흉부외과학회장에 선출

김상형 전남대학교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최근 서울 위귀관에서 열린 대한흉부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임기 1년의 대한흉부외과학회 회장에 선출, 취임했다.



전문건설협 전남도회장 취임

이상현 (주)부국건설 대표이사는 최근 광주시 상무리초컨벤션웨딩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 9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환측

- ▲김원태(전 동아여중 교장)·남순자씨 장남 법진(송연 모터스 대표)군 임종보·박연옥씨 장녀 송이양=7일(토) 낮 12시 예불부선 웨딩홀 3층.
▲함정자씨 아들 한치민군 선정식(반도여행사 대표)·장복희씨 딸 혜림양=7일(토) 오후 1시 무등파크호텔 4층.
▲김대용(전 광주고교 교사)·안숙씨 장남 강민군 박흥철·김명희씨 차녀 희선양=7일(토) 오후 5시 서울 밀알학교 2층 도산홀.
▲정종일(전 전남여고 교사)씨 차남 우영(곡성군청)군 신결혼식 차녀 미지(곡성군청)양=7일(토) 오전 11시20분 양동 금호생명 3층(노블레스홀).
▲김현백·허분순씨 차남 상배군 이옥주(남구 총무과장)·정원례씨

- 장녀 지현양=7일(토) 낮 12시30분 프라도호텔 2층(다이아몬드홀).
▲이범수·손점숙씨 장남 승준(남도일보 사진부 차장)군 송기원·박외순씨 장녀 난희양=7일(토) 낮 12시 웨딩의전당 금호 30층 아시아나홀.
▲나승수·이창엽씨 장남 상현(대왕산업 대표)군 김양길(전 한국농어촌공사)·최향옥씨 차녀 경선양=8일(일)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컨벤션홀).
▲권영순씨 차남 방성진(봉선동 자연과 바다)군 송기종·이정자씨 장녀 지현(화순 전남대병원 간호사)양=8일(일) 낮 12시40분 웨딩의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동창·동문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양정운) 월례회=5일(목) 오후 6시 금강산식당. 062-224-0808.

- ▲제11회 담양남초등학교 동문회(회장 김용국) 정기총회·한마음대회=7일(토) 오후 2시 모교 교정.
▲구림초등학교 제49회 동창회(회장 신원장) 속리산야유회=7일(토) 오전 7시30분 광주시청 앞 출발. 010-8200-8282.
▲대촌중학교 제9회 동창회(회장 이재근) 10회 정기총회=8일(토)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019-476-3354.

향우회

- ▲광산구행정동우회(회장 조동희)추계총회=9일(일) 오전 8시30분 광산구 보건소 앞 집결. 경남 합천해인사. 011-628-7120.

일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첨단산악초모임 자선바자회=7일(토) 첨단복지관 앞. 011-604-3015.
▲발관리 전문 상담=무겁고 피곤한 발, 각질, 무좀, 갈라진 발, 붓는 발 등. 광주시 북구 중앙동 백범약국 탐정형외과 옆 배네슈. 062-266-6657.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위기지원(출산, 양육, 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 생활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http://gjdongfc.familynet.or.kr/)

모집

- ▲진월요양보호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 능력개발카드 소지자 해

- 택)=주간반(오전 9시~오후 5시50분), 야간반(오후 6시30분~10시) 062-653-6690.
▲GS뷰티아카데미 회원 모집=피부미용, 네일아트, 헤어, 메이크업, 발관리 등 자격증반·취업반·강사반 등 모집. 서구 상운동 5·18문화센터 맞은편 수한의원 3층. 062-381-5051.
▲전문문화 보전 연구회=한문·예절·다도·시조 등 우리 전통문화를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회원선착순 모집. 북구 중흥 3동 동사무소 맞은편. 062-268-5588, 011-9440-2512.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 모집=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시,

- 강사-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문외 평생교육원(062-670-2167, 2168)

부음

- ▲김관례씨 별세 정관식·명절·대영씨 모친상=발인 4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문재중씨 별세 경식·수연·지연·정연씨 부친상=발인 4일(수)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심국씨 별세 이경선·경수·영화·미하·미순·미숙씨 모친상=발인 4일(수)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 ▲조영수씨 별세 광석·진용씨 부친상=발인 4일(수) 무등장례식장 201호. 062-515-4488.
▲이양례씨 별세 박일수·장수·근수·청준·복순·양순·맹순씨 모친상=발인 3일(화)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김순이씨 별세 전병국·병택씨 모친상=발인 3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허영기씨 별세 원·은영·은정·은민·지은씨 부친상=발인 3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김오복씨 별세 이정택·정남씨 모친상=발인 3일(화)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프리드 신진국영 명예시상 (주)현대종합상조 가임센터 1566-4499